

#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 케냐

Republic of Kenya

2023년 2월 16일 | 책임연구원 김경하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 일반개황

<b>면적</b> 580천 km <sup>2</sup> 	<b>인구</b> 5,092만 명 (2022 <sup>e</sup> ) 	<b>정치체제</b> 대통령 중심제 	<b>대외정책</b> 친서방 정책 
<b>GDP</b> 1,148.58억 달러 (2022 <sup>e</sup> ) 	<b>1인당GDP</b> 2,255.48달러 (2022 <sup>e</sup> ) 	<b>통화단위</b> Kenya Shilling(Ksh) 	<b>환율(U\$기준)</b> 117.87 (2022 <sup>e</sup> ) 

- 아프리카 동부 인도양 연안에 위치한 케냐는 한반도 면적의 2.6배에 달하는 국토와 약 5,092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남수단, 우간다, 탄자니아 등과 접경하고 있음.
- 2021년 민간소비 회복, Vision 2030 및 4대 국정과제(Big 4) 이행에 따른 공공 인프라 투자 등으로 플러스 경제성장을 회복했으며, 2022년에도 평화적 정권 교체와 국제무역 재개 등에 힘입어 5%대 경제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식료품,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과 달러화 대비 실링화 가치의 하락으로 2022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국제유가 상승 및 상품수입액 증가로 쌍둥이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 2022년 8월 실시된 대선에서 윌리엄 루토 전(前) 부통령이 50.5%를 득표하며 48.9%를 득표한 라일라 오딩가 전 총리에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며 케냐 역사상 가장 치열한 선거가 되었으나, 예년과 달리 부족 간 큰 갈등 없이 평화롭게 마무리됨.
- 케냐는 동아프리카의 맹주국으로서 동아프리카공동체(EAC) 등 지역공동체 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미국의 동아프리카 내 전략적인 경제·안보 협력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64. 2. 7 수교 (북한과는 1975. 5. 12)

**주요협정** 무역,경제,기술협력협정(1978), 문화협정(1980), 항공협정(1981),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2005), 무상원조협정(2014), 이중과세방지협약(2017), 투자보호협정(2017)

### 교역규모

(단위 : 천 달러)

구분	2020	2021	2022	주요품목
수출	220,228	258,419	456,693	유기화학제품, 철강제품
수입	36,975	46,846	75,736	동, 알루미늄, 방직용섬유

**해외직접투자현황(2022년 말 누계, 총투자 기준)** 31건, 10,154천 달러

##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경제성장률	5.7	5.1	-0.3	7.5	5.3
소비자물가상승률	4.7	5.2	5.3	6.1	7.4
재정수지/GDP	-6.9	-7.4	-8.1	-8.0	-7.0

자료: IMF, EIU

### 2022년 케냐 경제는 민간소비 회복,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플러스 성장을 기록

- 케냐 경제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0.3%의 역성장)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건설업과 광물업 중심의 경기 회복, 민간소비 회복,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2021년 7.5%의 플러스 성장을 회복하였으며, 2022년에도 5.3%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케냐의 국가개발 정책인 Vision 2030의 추진실적은 좋지 않았으나, 건설 경기 부양과 단기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간소비 활성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룸.
- 2022년에는 평화적 정권 교체, 주요 인프라 개발, 국제무역 재개, 전략적 투자유치 등으로 5.3%의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나, 2023년에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외환보유액 감소, 대외경기 악화 및 주요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차입 비용 상승, 긴축 재정정책으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성장률 둔화가 예상됨.

[표 1] 주요 기관별 케냐의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구분	IMF	EIU	Moody's	Fitch	S&P
2022년	5.3	5.2	4.7	5.42	5.3
2023년	5.1	5.0	5.3	5.04	4.2

###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및 원자재 국제가격 상승, 달러화 대비 실링화 가치 하락 등으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및 원자재 국제가격과 식료품 가격의 상승, 달러화 대비 실링화 가치\* 하락 등으로 2022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년 만에 최고치인 7.4%를 기록함.
  - \* 113.0('22.1.2) → 123.5('23.1.3)
  - \*\* 4.7%('18) → 5.2%('19) → 5.3%('20) → 6.1%('21) → 7.4%('22)
- 2021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농업 생산량 감소(전년 대비 약 70% 감소)와 2022년 러-우 사태에 따른 식량 수입 차질로 인하여 식품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어 2022년 9월 식료품 물가상승률은 15.5%에 달했으며, 달러화 대비 케냐 실링화 가치 하락 등으로 인해 소비자물가 역시 높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

## 국내경제

- 2023년에는 공급망 안정화에 따른 원유 수입가격 하락, 국내 금리 상승, 실링화 가치 하락 둔화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보다 하락하겠으나, 가뭄 지속과 국제유가 및 식료품 가격 상승 전망 등에 따라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목표치인 5%보다 높은 6%대 중·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케냐 중앙은행(CBK)은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2020년 4월부터 기준금리를 7.0%로 계속 유지하였으나, 2022년에는 글로벌 통화정책과 국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여 5월과 9월에 기준금리를 각각 50bp 및 75bp 인상하였고, 이어 11월 50bp 추가 인상하여 8.75%에 이름.\*
- \* 7.0%(‘22.3월) → 7.5%(‘22.5월) → 8.25%(‘22.9월) → 8.75%(‘22.11월)
- 2023년 추가적인 통화 긴축이 예상됨에 따라 기준금리는 9.5%까지 인상된 후 2024~26년 소폭 인하 될 것으로 예상됨. 한편,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평균 대출금리가 13.5%에 육박함에 따라 향후 인플레이션은 진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인프라 투자 및 코로나19 대응 정부지출 확대 이후 재정수지 적자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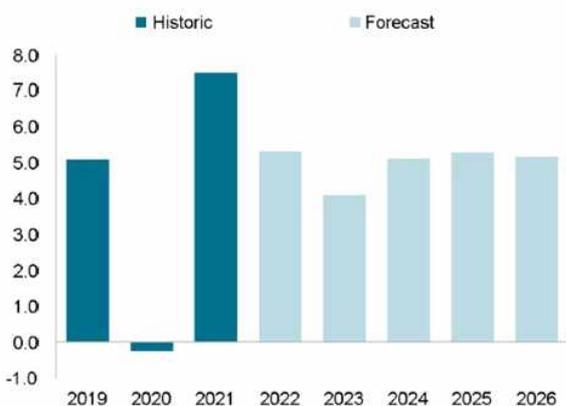
- 경제개발계획 Vision 2030에 맞춰 에너지·교통 분야 중심의 인프라 투자를 추진함에 따라 재정수지는 2015년 이후 매년 GDP 대비 -7%대의 적자를 기록하였고, 2020년 이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세금 감면 조치 등으로 2020~21년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GDP 대비 -8%대로 악화됨.
- 루토 행정부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하여 세수기반 확대 및 낭비적 정부지출 억제를 통하여 이전 정부에서 문제되었던 공적채무의 축소 및 채무관리 강화에 주력할 계획임.
- 이를 통해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20년 -8.13%에서 2023년 -5.27%, 2027년에는 -3.66%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GDP 대비 공적채무 비율\*\*은 2023년 66%로 정점에 달한 후 점차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8.02%(‘21f) → -6.96%(‘23f) → -4.16%(‘25f) → -3.66%(‘27f)

\*\* 63.6%(‘21f) → 66.0%(‘23f) → 63.5%(‘25f) → 58.9%(‘27f)

[그림 1] 케냐의 연도별 경제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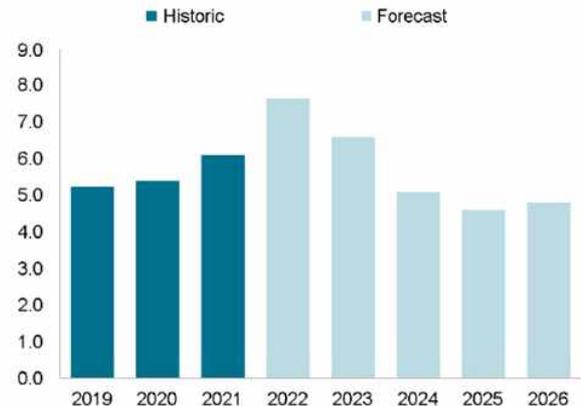
(단위: %)



자료: S&P Global.

[그림 2] 케냐의 연도별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단위: %)



자료: S&P Global.

## 대외거래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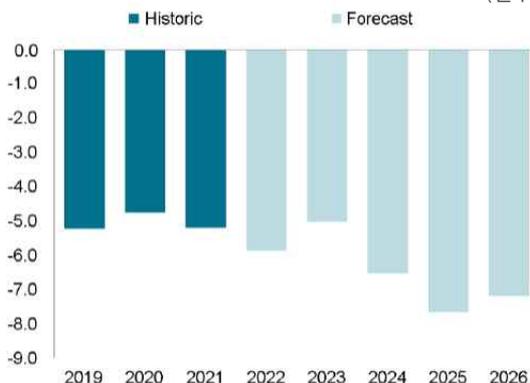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경상수지	-4,989	-5,258	-4,792	-5,744	-6,255
경상수지/GDP	-5.4	-5.3	-4.8	-5.2	-5.5
상품수지	-10,200	-10,683	-8,338	-11,065	-12,487
상품수출	6,087	5,871	6,052	6,789	7,615
상품수입	16,286	16,554	14,390	17,854	20,102
외환보유액	8,120	9,037	8,251	8,785	7,383
총외채	45,076	52,317	58,017	65,879	72,208
총외채잔액/GDP	48.9	52.2	57.5	59.6	62.9
D.S.R.	38.6	34.1	49.5	45.9	50.4

자료: IMF, EIU

###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상품수지 적자 증가로 당분간 경상수지 적자 지속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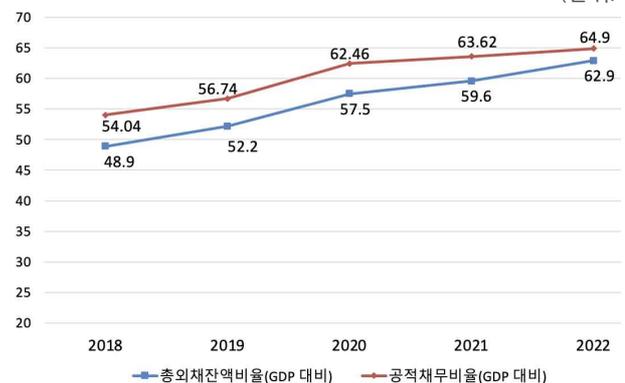
- 2020년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관광업의 회복 지연, 원유 등 상품수입액 증가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케냐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입보다는 외채를 통해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고 있어 외채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국제유가 상승과 상품수입액 증가로 인해 2022년 GDP 대비 -5.5~-5.9%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2023년에는 국제유가 하락 및 수입수요 둔화에 따라 GDP 대비 -5%로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상품수지는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
- 코로나19의 완화로 관광시장이 점차 정상화됨에 따라 서비스수지가 회복되면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이 2024~27년 동안 연평균 -4.5%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3] 연도별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 추이 및 전망 (단위: %)



자료: S&P Global.

[그림 4] 연도별 GDP 대비 총외채잔액 및공적채무 비율 추이 (단위: %)



자료: IMF, EIU.

## 외채상환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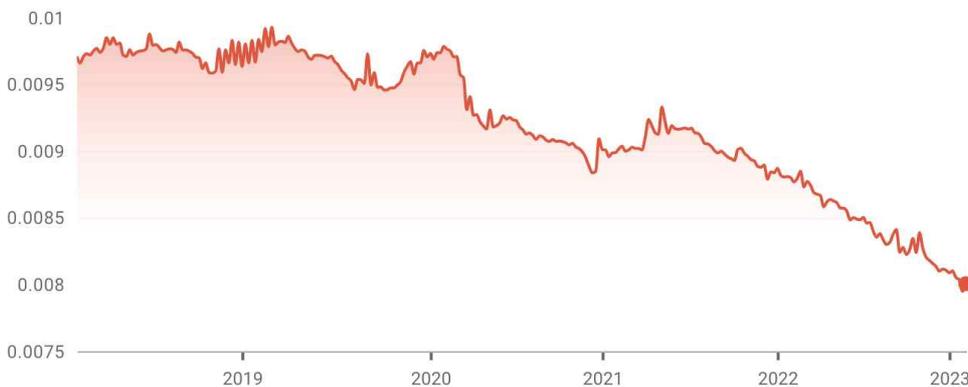
### GDP 대비 외채 비중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외채상환능력 악화 우려

- 2022년 말 케냐의 총외채잔액은 전년 대비 9.6% 증가한 722억 달러로,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전년 대비 1.3%p 상승한 62.9%로 추정됨. 케냐는 정부의 인프라 투자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 공공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 등으로 자본에 대한 수요가 높으나, 조세수입 및 FDI 등의 민간자본 공급이 크지 않아 적자 보전을 위한 공공부채 및 총외채\*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옴.

\* 총외채(억 달러): 451('18) → 523('19) → 580('20) → 659('21) → 722('22)

- 2022년 말 케냐의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은 전년(4.4개월) 대비 1개월분 감소한 3.4개월분으로 2015년 10월 이후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함.
- 주요 원인으로서는 달러화 대비 케냐 실링화 가치의 장기적 하락과 해외이주자로부터의 송금유입액 감소 등으로, 케냐 중앙은행과 케냐가 속해 있는 동아프리카 경제공동체(EAC)의 목표치인 4개월분 및 4.5개월분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락함.
- 케냐는 나이지리아와 짐바브웨에 이어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로 해외이주자 송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해외송금은 경상수지의 주요 구성요소이자 2022년 GDP의 약 3.4%를 차지함. 그러나 2022년 들어 해외송금 유입액은 7월 382억 실링, 8월 374억 실링으로 전년 대비 각각 5.1%, 0.8% 하락하며 감소세를 보임.
- 해외송금 유입 증가율의 둔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고조, 케냐 실링화의 지속적 평가절하 등이 예상됨에 따라 외환보유액 부족으로 인한 대외유동성 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5] 미 달러화 대비 케냐 실링화의 환율 변동 추이



자료: Google Finance.

## 구조적취약성

### 전력·수자원 등 기본 인프라는 여전히 취약

- 케냐는 2019년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에서 141개국 중 종합 95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으며, 인프라 부문은 110위를 기록하였음. 교통 인프라는 경제개발계획인 Vision 2030에 맞춰 철도·도로 건설 및 보수, 항만 개발, 공항 건설 등 전방위적 투자로 141개국 81위를 차지하며 주변국\*에 비해 양호한 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나, 전기·가스 등 유틸리티 관련 인프라\*\*는 115위로 여전히 열악한 수준임.

\* 교통 인프라 순위 : 르완다 71위, 우간다 75위, 탄자니아 110위, 에티오피아 121위

\*\* 세부 구성항목: 전력 보급 112위, 전력공급 품질 114위, 안전한 식수 노출 113위, 물 공급 안전도 116위

- 케냐 정부의 전력 생산 및 송·배전 관련 투자 확대로 가정의 전력 보급률은 2013년 32%에서 2022년 75%로 상승하는 등 유틸리티 인프라 개발이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케냐 정부의 3차 중기계획(MTP-III) 목표인 '2022년 말 전력 보급률 100% 달성'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케냐 정부는 보편적 전력 보급의 달성 시점을 2030년에서 2022년으로 앞당겼으나, 비싼 전력요금으로 전력소비 증가가 전력공급 증가를 따라잡지 못함. 이에 우후루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전기료를 15% 인하하는 정책을 시행했으나, 이로 인해 케냐 전력회사의 연간 수익이 4% 이상 감소함.
- 루토 대통령은 심각한 재정난으로 인해 취임 후 연료·식량 보조금을 폐지한 바 있으나, 전기료 인상은 없을 것임을 밝힘.
- 케냐 에너지부에서 2022년 7월 발표한 백서에 따르면 케냐는 에너지 설비용량을 현재 3GW에서 2040년까지 100GW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한편, UNICEF에 따르면 2020년 케냐의 안전한 식수 공급률은 59%, 개선된 위생시설 사용률은 29%로 여전히 상당수의 저소득층이 식수와 위생시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농업 의존적 경제구조에서 제조업 등으로 산업다각화 필요

- 케냐 경제는 농업 의존적 구조로, 2021년 기준 농업 생산량은 GDP의 22%를 차지했으며, 총인구의 40% 이상, 농촌 인구의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등 케냐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그러나 케냐의 농업은 노동집약적이고, 미미한 관개 비율과 인프라 부족으로 생산성이 낮으며, 가뭄, 폭우, 매뚜기 떼 창궐과 같은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함.
- 케냐 정부는 농업 기반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인식하고 산업다각화를 통한 안정적인 경제구조를 구축코자 제조업 육성을 최대 역점사업으로 선정, 제조업 부문의 연간 15% 성장을 목표로 제조업 육성정책(2012~30년)을 추진 중임.
- 집중 육성 분야는 ①노동집약적 부문(식품가공업, 섬유·의류, 가죽 및 가죽제품), ②중·상급 기술 부문(철강, 공작기계, 농기계·농구, 의약품), ③첨단 제조기술 부문(생명공학, 나노기술) 등임.
- 그러나 2016~20년 제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1.7% 수준이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아직 제조업 발전 속도는 더딘 것으로 평가됨.

\* 12.79%(07) → 11.16%(10) → 10.91%(13) → 9.32%(16) → 7.91%(19) → 7.24%(21)

## 구조적취약성

[표 1] 연도별 제조업 현황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제조업 생산(억 달러)	69.7	71.7	77.5	79.3	76.6	79.9
제조업 성장률(%)	0.7	1.9	3.6	2.6	-0.4	6.9
GDP 대비 비중(%)	9.3	8.7	8.4	7.9	7.6	7.2

자료: World Bank.

## 성장잠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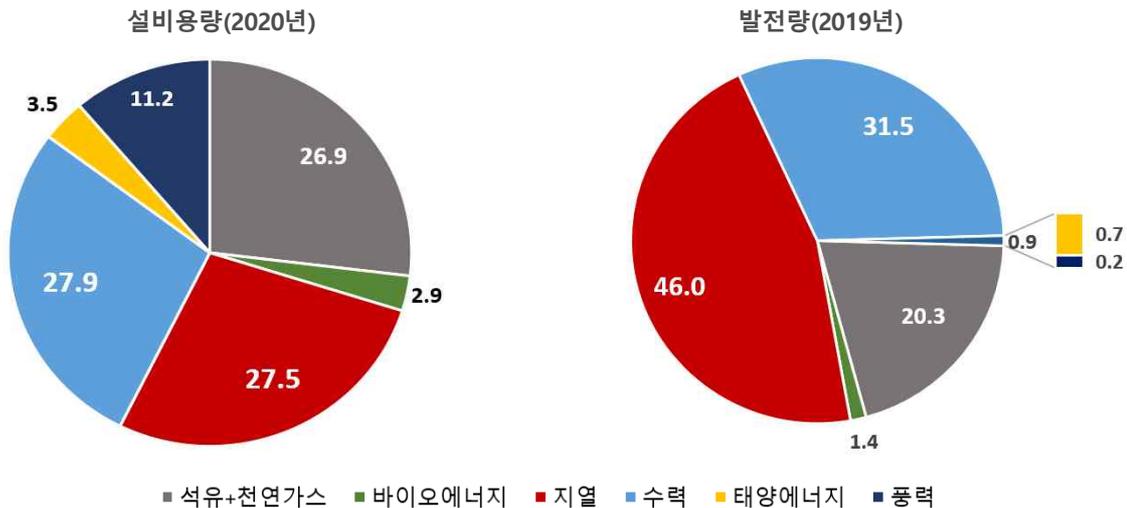
### 지열 및 기타 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발전방식의 다각화를 통한 전력난 해소 추진

- 케냐의 2020년 기준 인구 대비 전력 보급률은 71.4%, 취사용 청정연료 보급률은 20%로 에너지 보급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 케냐는 지리적으로 지열, 풍력, 태양열 등의 신재생 에너지 성장 가능성이 다분함.
  - 지열의 경우 동아프리카 열곡대(East African Rift System: EARS)<sup>1)</sup>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으로 상당한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EARS 지역의 지열에너지 잠재력은 15GW로 추산되며, 케냐 에너지부는 자국의 지열발전 잠재 용량을 총 7GW로 추정하고 있음.
  - 2021년 케냐의 지열발전 설비용량은 824MW로 아프리카 1위, 세계 8위 수준임. 케냐는 2030년까지 지열발전 설비용량을 5GW로 증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케냐는 풍력에너지 개발 잠재력도 높은 편으로, 국토의 73%가 풍속이 초속 6m/s 이상이며(지상으로부터 100m 높이 기준) 특히 북부의 Turkana 호수 주변 지역은 8.0m/s를 초과함. 이러한 입지조건에 힘입어 케냐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풍력 프로젝트인 발전용량 310MW급 Turkana 풍력발전소를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동 발전소는 연간 1,400GWh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며, 이는 연간 16백만 톤의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수준임.
- 그 결과 케냐는 총발전량 및 발전설비 용량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으며, 특히 지열 등 비수력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임.
  - 2020년 기준 총 발전설비 용량(2,998MW) 중 화석연료(807MW)는 27%, 재생에너지(2,191MW)는 73%를 차지하였으며, 발전량의 경우 2019년 기준 화석연료(2,393GWh)는 20%, 재생에너지(9,333GWh)는 80%를 차지하였음(그림 6 참고).

1) EARS는 동부 열곡대(eastern branch)와 서부 열곡대(western branch)로 구성됨. 동부 열곡대는 에티오피아, 에리트리아, 지부티, 케냐, 소말리아, 탄자니아 북부를 관통하고 발전에 적합한 고온인 것이 특징이며, 서부 열곡대는 부룬디, 우간다, 르완다, 탄자니아 서부, 말라위, 모잠비크, 북부 잠비아를 관통하고 그린하우스, 난방, 농산물 건조 등 직접 이용에 적합한 것이 특징임.

## 성장잠재력

[그림 6] 케냐 에너지원별 설비용량 및 발전량 비중(%)



자료: IRENA.

- 케냐는 동부 아프리카에서 전력 보급률이 가장 빠르게 상승하는 국가이자 재생에너지 발전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국가로, 정부는 2008년 발표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Vision 2030'의 3차 중기계획(MTP-III, 2018~22년)에서 전력 산업을 필수 기간산업으로 지정하고 전력 산업 목표\* 달성을 위해 송전선 건설, 재생에너지 자원 파악 및 자원 지도 개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임.

\* ①발전용량을 2022년까지 5,221MW로 증대, ②송전망 확대를 위한 송전선 건설(에티오피아-케냐, 케냐-우간다, 케냐-탄자니아 간 상호 연결 송전선 건설 등), ③Last Mile Connectivity 프로젝트(500만 가구에서 사용 가능한 전기 확보), ④재생에너지 활용 기술 확대(재생에너지 자원 파악 및 자원 지도 개발, 지역 역량 개발 촉진 등)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로의 완전한 전환 및 에너지 보급률 100% 달성, 국가 온실가스 목표에 따라 탄소 배출량 30% 감축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012년 수력발전 비중이 전체 전력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수력발전 비중이 높았으나,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현상의 심화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음. 이를 탈피하기 위하여 정부는 발전방식의 다각화를 통해 전력난을 해소하고자 노력해옴.

\* 전체 전력 생산량 중 수력발전 비중 : 50%(2012) → 35%(2018) → 36%(2020)

- 또한, 케냐 정부는 2019년 3월 에너지법안을 제정하여 에너지부가 2008년 시행한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 FIT)를 법안에 추가하는 등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을 촉진하고 있음.

## 정책성과

### Vision 2030 및 4대 국정과제(Big 4) 추진 중

- 2008년 초 케냐 정부는 2030년까지 중소득국 진입과 산업화를 목표로하는 중장기 국가성장전략 'Vision 2030'<sup>2)</sup>을 발표하고, 제1차 중기계획(MTP-I, 2008~12년)과 제2차 중기계획(MTP-II, 2013~17년)에 이어 현재 제3차 중기계획(MTP-III, 2018~22년)을 추진 중임.
- 제2차 중기계획은 인프라 개발, 취약계층 앞 금융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포용적 금융 제공, 학교 입학 학생 증가, 유아사망률 감소, 여성 역량 강화 등의 인적자원 개발 관련 성과는 유의미하였으나, 경제성장률(목표: 연평균 10%), 실업률 감소, 소득 불평등 해소 등 경제 관련 성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제3차 중기계획의 9대 주요 분야는 인프라 개발, ICT 육성, 과학·기술·혁신(STI) 촉진, 토지 개혁, 공공 분야 개혁, 노동·고용 창출, 국가 가치 및 윤리 확립, 가뭄에 따른 재난 해소, 안보·평화 구축 및 갈등 해결임.
- 인프라 관련 주요 추진 사업은 조모 케냐타 국제공항 터미널 1-B·C·D 확장·보수 및 제2활주로 건설, 몸바사항 제2 컨테이너 터미널 2단계 사업 확장, 동고쿤두 자유무역항 개발, 라무항의 3개 정박지 완공 및 29개 정박지 증설, 표준궤도 철도 사업 2단계(나이로비-말라바) 건설, 10,000km 포장도로 건설 및 개보수, 전력 발전용량을 2021/22 회계연도까지 5,221MW로 확대(2017/18회계연도 기준 2,699MW), 배전용 변전소 116개 건설 및 총연장 1,244km의 전선 설치를 통한 배전망 확충 사업임.
- 한편, 케냐 정부는 Vision 2030 달성을 위해 제3차 중기계획과 더불어 2018~22년 간 4대 국정과제(Big 4)로 ①제조업\* 활성화, ②서민주택 공급, ③보건·의료 향상, ④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선정하여 추진 중임.
  - \* 특히 농산물 가공업에 집중 투자할 예정으로, 농산물 가공업이 2022년까지 총 농업생산의 최소 50%를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4대 국정과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산업 경제로의 전환이며, 세부목표는 2022년까지 ①GDP 대비 제조업 비중 15%로 확대, ②최소 50만 개의 신규 주택 공급, ③전 국민 앞 보편적 의료 보장 제공, ④전 국민의 식량 안보 보장 및 영양 개선임.
- Vision 2030과 4대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나, 현 정권은 재정 건전화 정책도 함께 추진 중인 관계로 재정적자 규모 축소를 위해 정부지출을 줄이면서 기 계획했던 인프라 투자, 사회보장 정책 등과 연관된 일부 사업이 지연 또는 취소되고 있음.
- 2021/22회계연도 BIG 4 관련 예산은 총 14억 2100만 달러로 전년 12억 3,470만 달러보다 소폭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 이전 예산규모(약 40억 달러)에 비해 여전히 현저하게 적은 예산으로 2022년까지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 \* 연도별 Big 4 핵심 분야 예산 배정(백만 달러): 4,000('19년) → 4,500('20년) → 1,234('21년) → 1,424('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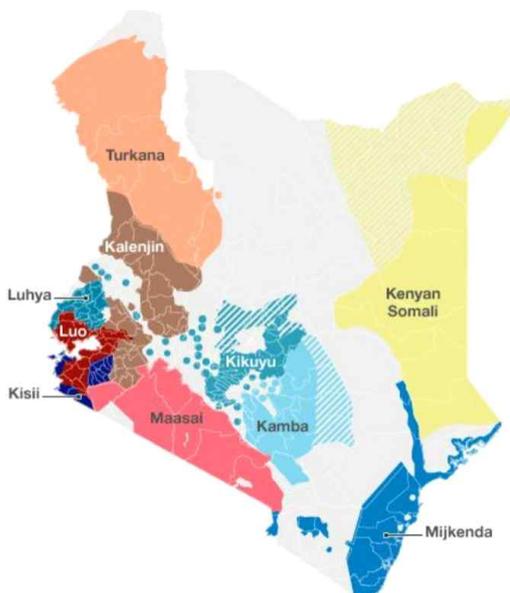
2) Vision 2030은 크게 경제, 사회, 정치 분야로 나뉘어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2012년부터 연평균 10%의 경제성장률 달성, 사회적으로는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평등한 사회 발전을 통한 공정하고 화합하는 사회 실현, 정치적으로는 인권을 보장하고 일·결과 중심의 정치기반을 통한 민주적인 정치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함. 이러한 목표 아래 10대 주요 과제로 거시경제 안정, 거버넌스 개혁, 소득 불평등 개선 및 빈곤층의 부 창출 기회 제공, 인프라 확대, 에너지 개선, 과학·기술·혁신 강화, 토지개혁, 인적자원 개발, 치안 강화, 공공분야 개혁을, 6대 육성 분야로 관광업, 농축산업, 무역, 제조업, 금융, IT를 선정하였음.

## 정치안정

### 2022년 9월 케냐 5대 대통령으로 윌리엄 루토 대통령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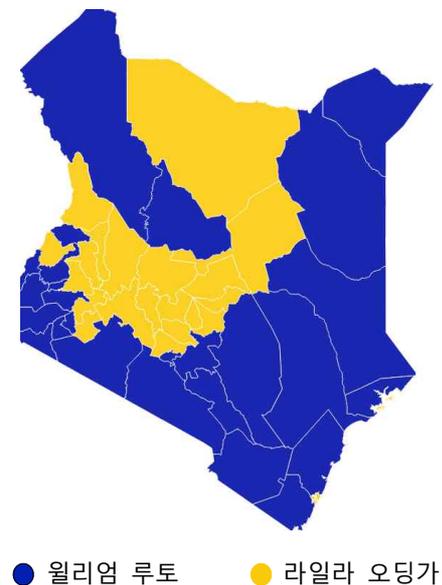
- 2022년 8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윌리엄 루토(William Ruto) 전 부통령이 라일라 오딩가 전 총리에 50.5% 대 48.9%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함.
- 다만, 선거 결과 발표 전 7명의 선거관리위원 중 부위원장 등 4명이 대선 결과의 불투명함을 지적하며 이의를 제기하였고 라일라 오딩가 후보 역시 패배에 대하여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정 공방 끝에 선관위원장은 헌법에 따라 의무를 다했으며 윌리엄 루토가 적법하게 대통령으로 선출됐음을 선언하였고, 대법원이 선거 결과를 확정함에 따라 루토 대통령은 9월에 취임함.
- 케냐 최대 부족인 키쿠유족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오지 않았고, 키쿠유족인 우후루 케냐타 전 대통령이 자신의 부통령인 루토(칼렌진족) 후보가 아닌, 수년 간 정적 관계에 있던 오딩가(루오족) 후보를 지지하면서 케냐 역사상 가장 치열한 선거가 치러짐.
- 키쿠유족 엘리트들은 오딩가를 지지한 반면, 케냐타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실망한 키쿠유족 서민 대다수는 루토를 지지하면서 키쿠유족 내부에서 표심이 갈림.
- 오딩가 후보는 47개 주 중 수도인 나이로비를 포함한 27개 주, 루토 후보는 20개 주에서 승리하였으나,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루토 후보가 큰 득표 차로 승리하면서 총득표수에서 우세를 보이며 승리함.
- 같은 날 치러진 총선 결과 하원에서는 오딩가 후보가 이끄는 정당연합인 아지미오(Azimio)가 전체 349석 중 173석을 얻어 다수당의 지위를 차지했으며, 루토 부통령의 케냐 관자(Kenya Kwanza)는 161석을 확보하였음. 한편, 상원에서는 전체 47석 중 케냐 관자가 24석을, 아지미오가 22석을 차지함.

[그림 7] 케냐의 지역별 부족 분포



자료: B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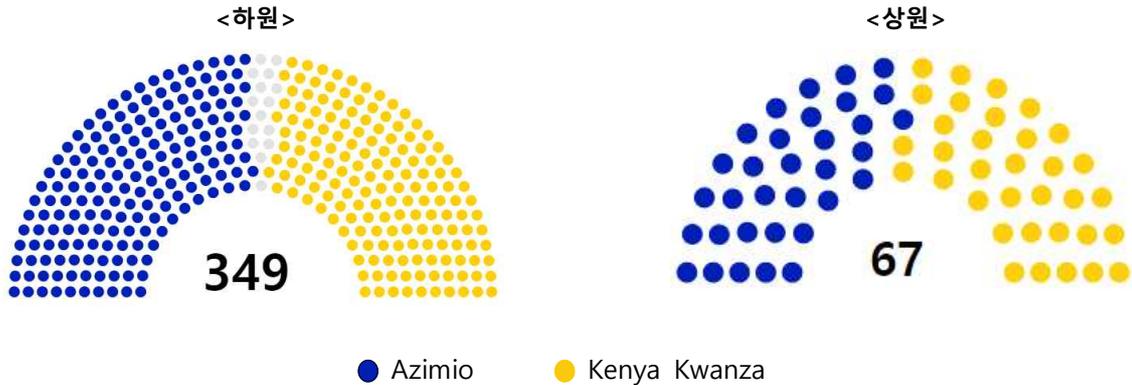
[그림 8] 2022년 8월 케냐 대선 결과



자료: NTV(Kenya).

## 정치안정

[그림 9] 2022년 8월 케냐 총선 결과 연합당별 의석 획득 현황



자료: NTV(Kenya).

- 윌리엄 루토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반중국 기치를 내걸며 불법체류 중국인 추방, 중국과의 차관 조건이 불투명하다고 비판받는 철도 계약서 공개 의지 표명 등 반중 성향을 보였음. 이는 향후 중국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루토 대통령은 '상향식 경제'(bottom up economics)를 표방하여 ①농업, ②중소기업 경제, ③주거, ④보건의료, ⑤초고속 디지털 통신망 및 콘텐츠 산업을 5대 축으로 하는 서민 친화적 정책을 제시함.
- 루토 진영은 유력 정치 가문 출신인 오딩가, 케냐타와 대비되도록 루토 후보의 서민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서민의 생활고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하여 선거에서 승리한 만큼 다양한 서민 친화적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됨.

## 사회안정

### 소말리아 테러 조직 알샤바브(Al-Shabaab)에 의한 테러 위험 상존

- 소말리아에 근거지를 둔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인 알샤바브(Al-Shabaab)를 축출하기 위해 조직된 아프리카연합(AU)의 소말리아 평화유지군(African Union Mission In Somalia)에 케냐 정부가 2011년 10월 군 병력을 파병한 이후 알샤바브는 케냐를 주요 공격 대상으로 지정, 급조 폭발물에 의한 무차별 테러 공격을 자행하여 케냐의 치안이 악화되었을 뿐 아니라 관광업·물류업 등 서비스업 위축, 외국인 투자 감소 등의 경제적 타격도 심각하게 받고 있음.
- \* 주요 사건: 2013년 나이로비 웨스트게이트 쇼핑몰 테러(67명 사망), 2015년 모리 대학교 가리사 캠퍼스 테러(148명 사망), 2019년 나이로비 호텔 테러(10명 이상 사망), 케냐-소말리아 국경 인근 북동부 지역 도로 폭탄 매설 테러(10명 이상 사망), 2022년 케냐 해안 지역 라무 마을 테러(6명 사망)
- 최근 소말리아 접경 지역인 케냐 북동부(만다라, 와지라, 가리사 지역)에 대한 테러 공격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2022년 대선으로 정국이 혼란한 틈을 타 테러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
- \* 주요 사건: 2020년 1월 미군-케냐군 합동기지 공격으로 미국인 3명 등의 사상자 발생, 2022년 3월 케냐 북부 및 해안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 건설에 대한 테러 공격으로 공사 일시 중단

### 2022년 부패인식지수 순위는 전년 대비 5단계 상승한 123위 기록

- 2022년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 보고서에서 케냐는 32점(100점 만점)으로 조사 대상 180개국 중 123위를 기록하였음. 이는 1년 전 128위보다 5단계 상승한 결과로, 동아프리카공동체(EAC) 회원국\*들 중 르완다, 탄자니아보다는 낮고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부룬디, 남수단보다는 높은 순위임.
- \* EAC 회원국들의 부패인식지수: 르완다(51점, 54위), 탄자니아(38점, 94위), 우간다(26점, 142위), 콩고민주공화국(20점, 166위), 부룬디(17, 171위), 남수단(13점, 178위)

[그림 10] 케냐의 부패인식지수(CPI) 점수 추이(2012~22년)



자료: Transparency International(TI).

-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정부패는 케냐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주요 걸림돌로 적용하고 있음. 루토 신임 대통령은 집권 이후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정부 관료들의 극심한 부정부패가 공공재정에 손해를 끼친 것과 관련하여 관료들의 부정 혐의 발견 시 즉시 기소 및 처벌하고 있음.
- 케냐 정부가 부패 척결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강력하게 천명하고 있어, 향후 부패 척결 이행 여부에 따른 개선 가능성이 주목됨.

## 국제관계

### 동아프리카의 지역경제공동체 내 선도적 역할 수행

- 케냐는 동아프리카의 맹주국으로서 아프리카 역내 지역통합을 중시하여 지역공동체 내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 케냐는 현재 동아프리카공동체(EAC), 동남부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동아프리카 정부 간 개발기구(IGAD),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 회원국임.
- EAC는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남수단, 콩고민주공화국의 7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세동맹과 단일 공동시장을 형성하여 역내 상품·서비스·자본·노동 이동이 자유로움. 이에 더해 2023년 까지 단일통화 도입으로 통화동맹도 이루고자 추진 중이나 속도는 느린 편임.
- AfCFTA는 2012년 아프리카연합(AU) 총회에서 아프리카 역내 교역 활성화를 위해 창설된 자유무역지대로, 2019년 5월 30일 공식 발효, 2021년 1월 1일 공식 출범함. 55개 AU 회원국 중 에리트레아를 제외한 54개국이 서명하였으며, 2022년 5월 기준 케냐 포함 43개국이 비준을 완료함.

### 서방 및 아시아 국가와의 우호적 관계 형성 노력

- 케냐는 영연방의 일원으로, 전통적으로 영국, 미국 등 서방 국가와 우호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실질적인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중국 등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도 확대하여 왔음.
- 케냐타 전 대통령 집권 초기에는 국제사법재판소(ICC)의 기소<sup>3)</sup> 등에 따라 서방국가와의 관계가 다소 소원해졌으나, 이후 미국 대통령의 아프리카 국가 순방, AGOA 연장<sup>4)</sup>, Power Africa Initiative(전력·인프라 친환경 에너지사업) 참여 등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어 현재 동아프리카 내에서 미국의 전략적인 경제·안보 협력국의 지위를 유지<sup>5)</sup>하고 있음.
- 2020년 2월 케냐는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로는 최초로 미국과의 자유 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구체적인 협의는 본격적으로 착수된 바 없음. 또한, 양자 무역협정에 대한 EAC, AfCFTA 등 지역공동체의 문제 제기로 FTA 추진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 2021년 3월 케냐는 영국산 상품에 대한 영구 면세, 민감 품목 보호의 점진적 폐지 등을 담고 있는 무역협정을 체결함. 영국 수출기업들은 평균세율이 25%에 달하는 케냐의 수입관세 적용에서 면제되어 다른 국가들보다 경쟁우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중국은 케냐의 최대 수입상대국(2020년 기준 상품수입의 21.9%)으로 중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높으며, 중국 자본을 기반으로 한 일대일로 프로젝트 참여로 인프라 투자에 따른 대 중국 채무액이 큼.

3) 2007년 대선 이후 선거 결과를 놓고 발생한 중족 간 유혈사태 배후를 주도한 혐의로 케냐타 전 대통령이 ICC에 기소되었으나, ICC 공소가 2014년 12월 철회됨.

4) 아프리카성장기회법(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 발전과 빈곤 퇴치를 목적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수출품에 대한 미국 시장 무관세 접근을 허용하는 미국 정부의 특혜무역조치임. 2000년 첫 시행 후 현재 2025년까지 시효가 연장됨.

5) 케냐는 미국 민간 기업의 아프리카 내 주요 투자처로, 특히 ICT, 서비스, 금융, 재생에너지(수력, 태양광, 풍력)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활발함.

## 외채상환태도

### 외채상환태도는 비교적 양호하나 연체액이 소폭 증가 추세

- 케냐는 1994년, 2000년, 2004, 2021년 네 차례에 걸쳐 파리클럽과 채무재조정을 실시함. 파리클럽의 최신 공시자료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케냐의 파리클럽 회원국 및 관련 기관 앞에 대한 채무잔액은 총 3,151백만 달러로, ODA 채무잔액은 2,933백만 달러이며 그 외 채무잔액은 217백만 달러임.
- 2022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외채규모는 1,959백만 달러(단기 246백만 달러, 중장기 1,713백만 달러)이며, 현재 잔액의 약 2%에 해당하는 38.6백만 달러를 연체\* 중임.  
\* 연체액(백만 달러): 10.0('20.9월) → 15.1('21.3월) → 22.1('21.6월) → 30.7('21.9월) → 38.6('22.9월)
- 2022년 5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외채 채무연장(리스크줄링)이 없는 점, IMF 및 World Bank에 대한 외채의 연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교적 양호한 외채상환태도를 보이고 있음.
- IMF는 외환보유액 확보 등을 목적으로 2022년 중 케냐에 대해 총 6.82억 달러의 대출을 승인함(7월 2.35억 달러, 12월 4.47억 달러).
- 한편, 중국은 세계은행에 이어 케냐의 두 번째로 큰 대외 채권자이며, 지난 10년 간 중국으로부터 대출한 자금은 케냐 철도, 도로 등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투입됨. 2021년 1월 중국은 270억 실링(약 2,700억 원)에 달하는 케냐 정부의 대 중국 부채 상환기한을 6개월 연장한 바 있음.

##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7등급(2022.07)	6등급(2021.06)
Moody's	B2 (2023.01)	B2 (2021.03)
Fitch	B (2022.12)	B+ (2018.02)

### OECD와 국제신용평가 3사 모두 케냐에 대해 기존 등급 유지

- OECD는 2022년 6월 재정적자로 인한 부채 의존도 증가, 대선 전 정치적 불확실성 존재 등을 감안하여 케냐의 국별 신용등급을 6등급에서 7등급으로 하향 조정함.
- Moody's는 다변화된 경제구조, 금융 부문의 성숙도, 양호한 중장기 경제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채 증가 추세에 비해 부족한 재정수입, 재정정책의 효과성 및 신뢰도 하락 등으로 케냐에 대하여 B2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Fitch는 2022년 12월 쌍둥이 적자의 지속과 높은 부채 수준, 대외 유동성 악화, 높은 외부자금 조달비용 등을 감안하여 케냐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B+ → B) 조정함.